

AUTHOR 김요섭

TITLE 그리스도의 나라와 교회 : 칼빈의 종말론적 교회
이해 연구

IN 한국개혁신학

Vol. 27 (2010): 129-160

- 재 19.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09.
- 송영목.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예배.” 『한국개혁신학회 제24차 정기학술심포지엄 자료집』 (2008년 5월 24일).
- 신현우. “소기천 교수의 논문에 대한 논평.” 『한국개혁신학회 제27차 정기학술대회 심포지엄 자료집』 (2009년 11월 7일. 한국개혁신학회), 103-107.
- 안인섭. “칼빈과 정치.” 『교회사학』 제8권 제1호(2008).
- 유해룡. “칼빈의 영성학 소고.” 『장신논단』 16(2000).
- 요셉 리차드. 『칼빈의 영성』 한국 칼빈주의 연구원 편역. 서울: 기독교문화협회, 1986.
- 이달. “하늘과 땅의 예배: 계시록에 나타난 예배의 서사적 기능.” 『한남대학교 논문집』 29(1999).
- 이수영. “경건론” 『칼빈신학해설』.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 이승구.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우주적 예배와 우리의 예배.” 『제3차 프로 에클레시아 신학회 신학논문 발표회: 요한계시록과 교회의 미래』, 2002.
- 정일용. 『기독교 예배학 개론』. 서울: 범지, 2005.
- _____. “한국교회의 예배변화와 예전의 문제점.” 한국개혁신학회 제24차 정기학술 심포지엄 자료집(2008년 5월 24일).
- 존 H. 리스. 『칼빈의 삶의 신학』 이용원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5.
- 최윤배. “갈뱅의 경건으로서 영성.” 『개혁교회의 경건론과 국가론』.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07.

『한국개혁신학』 제 27호 (2010) : 129-160

그리스도의 나라와 교회: 칼빈의 종말론적 교회 이해 연구

김요섭 (칼빈대학교, 역사신학)



칼빈은 그의 저술 여러 곳에서 여러 차례 교회를 그리스도의 영적인 나라와 긴밀하게 연관해 설명한다. 그러나 교회와 그리스도의 나라의 관계에 대한 칼빈의 이해를 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칼빈의 설명에 전제되고 있는 신학적 기초들을 염두에 두어야만 한다. 첫째, 칼빈은 그리스도의 나라를 섬기기 위해 가시적 교회에 부여된 “말씀” 사역의 중요성을 전제하면서 이 두 실체의 밀접한 관계를 강조한다. 칼빈은 말씀을 하나님의 통치의 “홀”(sceptum)이라고 부르면서 그 권위를 구원역사 가운데 설명한다. 그리고 구원역사 가운데 가시적 교회를 그리스도의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하는 “기관(agent)”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가시적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적 나라와 밀접한 관계는 항상 말씀의 사명을 부여받은 독특한 신적 기관으로서의 교회의 사명에 기초한다. 둘째, 칼빈은 교회가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나라와 관계되어 있다고 설명할 때 가시적 교회의 이 사명이 그리스도의 나라의 도래를 위한 종말론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한다. 교회가 구속사 가운데 부여 받은 말씀의 사명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나라의 종말론적 완성이 이루어질 마지막 날까지 계속된다. 그 마지막 날 택자들의 공동체인 비가시적 교회는 그리스도의 나라의 영적인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게 된다는 의미에서 완성된다. 다른 한편, 가시적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부여하신 말씀 선포의 사역을 완수하여 그 사명을 종결한다는 의미에서 완성된다.

구속사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한 가시적 교회의 종말론적 사명에 주목하면서 칼빈은 교회론에서 비가시적 교회와 가시적 교회가 서로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non separatio sed distinctio)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설명한다. 두 교회는 그리스도의 나라의 성장에 구속사 가운데 종말론적으로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분리될 수 없다. 그러나 비가시적 교회는 택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온전히 누리겠다는 측면에서 완성되며, 가시적 교회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섬기는 사명을 완수한다는 의미에서 완성된다는 측면에서는 서로 구별된다.

칼빈은 두 가지 실천적이며 목회적인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나라와 관련시킨다. 첫째, 칼빈은 가시적 교회의 가치와 역할을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설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편을 위탁하신 교회 안에서 교회와 일치할 유지를 함을 역설하고자 했다. 교회는 현재 늘 불완전하지만 그리스도의 나라를 섬기는 독특한 기관이라는 측면에서 합법적 권위를 가지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교회 안에서 일치를 이루어야 한다. 둘째, 칼빈은 그의 종말론적인 교회 이해를 통해 고난과 핍박의 상황에 처해 있는 참된 교회와 그 안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자 한다. 하나님께

서는 그의 나라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온전하게 성숙해 가기 위해 이 땅에 가시적 교회는 세우시고 사용하신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떤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의 나라의 통치를 완성하기 위해 세워진 기관인 그들의 교회가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나라가 아버지께 온전히 바쳐질 때까지 보존되고 쓰임을 받을 것을 확신해야 한다.

• **주제어** : 그리스도의 나라, 종말론적 사명, 흠, 비가시적 교회, 가시적 교회, 소망의 교회론

• 투고일 : 2009. 11. 07 • 수정 투고일 : 2010. 1. 16. • 게재 확정일 : 2010. 3. 16.

1. 들어가는 말

- 그리스도의 나라와 교회의 관계 -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한 시대의 교회나 그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의 나라 안에서 교회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해 왔다. 그러므로 그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나라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검토하는 작업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나타난 다양한 교회론들과 그 실제적인 적용을 평가하는 데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16세기 종교개혁 시기 가장 뛰어난 신학자이며 개혁자 중의 한 사람인 존 칼빈 역시 그의 글의 많은 곳에서 여러 차례 교회를 그리스도의 나라, 혹은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시켜 설명했다.¹ 한 예로 『기독교강요』 4권의 처음 부분에서 칼

¹ Torrance는 칼빈이 사용한 “하나님 나라”(Regnum Dei)와 “그리스도의 나라”(Regnum Christi)의 두 개념의 의미상 차이가 있음을 주장한다. 즉, 칼빈은 하나님의 영원한 위엄과 통치와 관련하여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최후

빈은 신자가 죄 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면 교회의 일원이 됨과 동시에 그리스도 왕국의 백성이 된다고 말한다. “죄의 용서는 우리에게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첫 관문이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에게는 언약도 없고 하나님과의 결속도 없다.”² 칼빈이 여기에서 말하는 교회는 성도가 세례를 통해 가입하는 제도적이며 가시적인 교회이다. “따라서 우리는 세례라는 표징에 의해서 교회라는 공동체에 처음으로 가입을 허락 받으며, 세례는 우리가 우선 하나님의 인애로 우리의 누추함을 씻어 버리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가족에 가입하는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친다.”³ 이처럼 칼빈은 그리스도의 나라와 가시적 교회의 밀접한 관계에 주목한다. 다음과 같은 언급은 그의 이런 입장을 명시적으로 보여준다. “그리스도의 통치는 하늘에 있는 백자들의 공동체에서 먼저 발견되지 않고 이 땅 위에 있는 교회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다.”⁴

윌콕스는 칼빈의 선지서 주석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나라”의 개념을 교회론의 관점에서 분석하면서 칼빈은 그리스도의 나라를 “제도적이며 가시적인 교회”와 “곧바로”(without any qualification) 동일시했다고 주장한다. “칼빈

의 도래 때까지 세상을 다스리는 유한한 도래와 관련하여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Thomas F. Torrance, *Kingdom and Church* (London: Oliver and Boyd, 1956), 95. 그러나 칼빈은 “그리스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예리한 신학적 의미의 차이를 두지 않고 유사한 의미로 사용한다. Palmer는 칼빈의 신학에서 주로 하나님의 통치가 개개인의 삶에 드러나는 것과 관련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사용되고, 반면 한 공동체 안에서 조직화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과 관련해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말을 사용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Palmer는 곧 이어 칼빈의 신학에서 “이런 구별은 항상 예리하게 유지되는 것은 아니며 regnum Dei와 regnum Christi는 성경의 용례를 따라 상호교체적으로 사용된다”고 주장한다. Thomas Palmer, “Kingdom and Church in Calvin: The Question of the Identification of Kingdom and Church in the Theology of John Calvin,” (Ph.D. Thesis: University of Aberdeen, 1991), 8-22.

² *Institutes*, IV.1.20, “Est ergo primus nobis in Ecclesiam ac regnum Dei ingressus, sine qua nihil est nobis cum Deo foederis aut coniunctionis.” OS.5: 24.

³ *Institutes*, IV.1.20, OS.5: 24.

⁴ *Comm. Eph.* 1:14, CO.51: 154.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왕국이라고 부를 때, 그는 말씀을 들음으로써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지배권의 영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선포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그의 통치를 실현하기 위해 세우신 기관(agency) 자체를 의미한다.”⁵ 그리고 이런 동일시의 결과 칼빈이 당시 개혁파 교회들의 성장과 확장을 지지했고 더 나아가 선교의 전망까지 제시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칼빈이 가시적이며 제도적인 교회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맺고 있는 밀접한 관계를 설명할 때 일관되게 전제하는 신학적 기초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로 이 두 실체를 바로 동일한 것으로 평가한다면 칼빈의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교회론적 이해를 바르게 파악하기 어렵게 된다. 칼빈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나라를 섬기기 위해 가시적 교회에 부여된 “말씀” 사역의 중요성을 늘 전제한다. 즉 가시적 교회의 가시적 교회의 가장 중요한 외적 표지이자 목회적 역할의 내용인 “말씀”과 무관하게 교회를 그리스도의 나라와 연결시키지 않는다.

두 번째로 칼빈은 가시적 교회가 그리스도의 나라의 도래를 위해 감당하는 사명의 종말론적인 성취를 그의 설명에 전제한다. 즉, 가시적 교회는 그리스도의 나라의 종말론적 완성을 위해, 그 완성의 날까지 이 세상에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신적 기관이기 때문에 교회의 이런 종말론적인 성격에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나라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윌콕스가 그의 결론의 근거 구절로 사용하는 『기독교강요』 IV.2.4와 칼빈의 아모스 9:13 주석을 중심으로 칼빈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언급하는 그의 교회론적 설명들 분석하여 이 두 가지 기본적인 신학적 전제가 칼빈이 그리스도의 나라와 교회를 연결시킬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신학적 기초임을 보여 주고자 한다.⁶ 그리고 이런 신학적 전제에 기초한 칼빈

⁵ Peter Wilcox, “The Progress of the Kingdom of Christ’ in Calvin’s Exposition of the Prophets,” in *Calvinus Sincerioris Religionis Vindex*, ed. Wilhelm H. Neuser (Kirkville: Sixteenth Century Journal Press, 1997), 320.

의 종말론적인 교회 이해가 오늘날의 “교회”를 위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지 제안해 보고자 한다.

2. 칼빈의 그리스도의 나라 이해

칼빈은 그리스도의 나라를 제도적인 조직체로서의 교회보다는 신자의 내면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와 그 결과와 연결한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칼빈의 설명들을 검토해 보면 그가 교회론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개념을 설명할 때 이런 관심을 일관되게 가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주기도문 가운데 “나라가 임하옵시며”에 대한 『기독교강요』의 해석은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칼빈의 이해를 살펴 볼 수 있는 가장 유용한 부분 중의 하나이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의는 앞에도 있었지만 여기에서 간단히 반복하고자 한다. 사람들이 자기를 부정하고 세상과 지상 생활을 경멸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로 약속하며 하늘 생명을 얻으려고 노력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는 두 부분이 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항거하는 모든 육의 정욕을 그의 영의 힘으로 바로잡으신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생각을 그의 법도에 맞도록 인도하신다.⁷

⁶ 칼빈의 교회론에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갖는 함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6세기 종교개혁 당시 로마 교회의 교회론에서의 “그리스도의 나라” 이해와 급진 개혁파의 이해, 그리고 다른 개혁자들, 특히 루터와 부처의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한 이해를 비교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서 Torrance의 *Kingdom and Church*는 루터와 부처의 신학을 칼빈과 비교한 유용한 연구서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이런 역사적인 비교 연구는 다루지 않고 칼빈의 교회론에 있어 “그리스도 나라”의 개념의 신학적 의미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⁷ *Institutes*, III.20.42, OS.4: 352. 여기에서 칼빈이 말하고 있는 앞에서의 정의는 III.3.19에서의 정의이다.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했을 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죄의 용서와 구원과 생명과 그 밖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모든 것을 의미

1559년 『기독교강요』 최종판에 삽입된 위의 문장은 1536년 초판에 있었던 주기도문 해설을 수정한 것이다. 초판은 하나님 나라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으로 자기 백성 위에 행하시고 다스리어 그의 선하심과 자비의 부요가 그들이 하는 모든 일 속에 나타나도록 하는 일이다. 반면에 유기된 자들은 파멸과 내던져짐을 당하는 것이기도 한데, 이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과 주님을 위한 존재인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그의 통치에 굴복하기도 거절하는 자들이다. 그들의 이런 모욕적인 교만을 깨뜨리고 낮추셔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항할 수 있는 세력을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보여주는 일도 그의 나라에 속한다.⁸

칼빈은 위의 정의들에서 하나님 나라를 신자들의 내면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새롭게 이루어지는 은혜의 결과에 관련시켜 설명한다. 신자들의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와 그 결과에 대한 관심은 『기독교강요』뿐 아니라 그의 주석에서도 동일하다. 마태복음 6:10의 주기도문에 대한 주석에서 발견할 수 있는 칼빈의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에 주목해야 한다.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되도록 자신의 육체를 복종시키고 욕망을 내어버림으로써 스스로를 하나님의 통치에 자발적으로 굴복시키고 헌신할 때 그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진다고 말한다.”⁹

했다.” *Institutes*, III.3.19, OS.4: 109.

⁸ *Institutes* (1536), III, “*Regnum Dei est, sancto suo agere ac regere suos, quo in omnibus eorum operibus divitiis bonitatis ac misericordiae suae conspicuas faciat; rursus, reprobos, qui se pro Deo et Domino non agnoscunt, qui suo imperio subiici nolunt, perdere ac deicere, et sacrilegam eorum arrogantiam prosternere, quo manifestum fiat, nullam esse potestatem quae suae potestati resistere quaet.*” OS.1: 109.

⁹ *Comm. Matt.* 6:10, CO.45: 197.

물론 위의 설명들이 주기도문에 나타난 “나라”에 대한 해석이며, 특히 『기독교강요』 3권의 구원론적 논의의 맥락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칼빈이 어떤 제도적이며 가시적인 조직체보다는 신자의 내면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칼빈은 신자의 내면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교회론의 맥락에서도 동일하게 강조한다. 칼빈은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를 교회의 종말론적인 상황을 설명하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이 본문이 말하는 “아버지의 나라”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신실한 자들의 기업으로서의 아버지의 나라는 이 땅과 대조되어 신자들이 이곳에서 나그네들이며 따라서 하늘을 바라보아야만 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한다. 다른 본문[눅 17:21]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만유 가운데 충만하게 되실 때까지 얻을 수 없다.[고전15:28]¹⁰

칼빈은 『기독교강요』 4권에서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 통치의 성격을 설명할 때에도 이 통치의 영적인 성격을 강조한다. 특별히 칼빈의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영적인 해석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곧 로마 교황에 의해 다스려지는 제도적 교회임을 주장하는 교황주의자들을 반박하기 위한 중요한 신학적 기초이다. 칼빈은 교황주의자들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그리스도의 나라는 제도적이며 가시적인 조직이 아닌 영적인 실체임을 강조한다.

그들[교황주의자들]은 교회의 위엄이 이런 장엄한 외관에 의해서 유지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만일 어떤 유대인이 이런 말씀들을 약용한다면 그들은 무

¹⁰ *Comm. Matt.* 13:43; *CO.45:* 371. 유사한 칼빈의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Comm. Luke* 17:21, *CO.45:* 424; *Comm. 1 Cor.* 15:28, *CO.49:* 549에서도 발견된다.

엇이라고 대답할 것인가를 묻는다. 물론 그 어리석음을 책망할 것이며, 그리스도의 영적인 나라에 대해서 영적 의미로 한 말을 육과 세상에 옮겼다고 비난할 것이다.¹¹

칼빈은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적인 실체임을 거절하고 그의 영적인 나라를 부패한 그들의 교회 제도에 가두어 두려는 로마주의자들의 통치는 적그리스도의 왕국에 속한다고 공격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교황제도]이 우선 신체보다도 영혼에 대한 압박이며 그리스도의 영적인 나라에 대적하는 것이라고 추론한다? 처음부터 있어 온 이단과 분파들은 모두 적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한다.”¹²

칼빈은 이런 논쟁적 맥락이 아닌 곳에서도 교회를 통해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적인 실체임을 강조한다. 한 예로, 『기독교강요』 4권 20장에서는 국가 통치를 논하면서 그리스도의 나라의 영적인 성격을 세상 왕국의 성격과 대조하며 강조한다.

그러나 몸과 영혼을 구별하며 덧없는 현세와 영원한 내세를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적인 왕국과 이 세상의 세속적인 지배권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안다.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 세상의 초보적인 제도에서 찾으며 거기에 한정하려는 것은 유대적이 허망한 생각이다. 그러므로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은 영적인 결실이며, 이 영적 결실은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명심해야 한다.¹³

¹¹ *Institutes*, IV.5.17, OS.4: 87. 칼빈은 교회의 입법권, 권징의 권위, 성만찬의 참 의미 등의 주제들에서 교황주의자들의 입장을 비판할 때에도 모두 그리스도의 나라 혹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특징을 일관되게 강조한다. *Institutes*, IV.10.23; OS.5: 186; IV.11.5; OS.5: 200-201; IV.17.22, OS.5: 377.

¹² *Institutes*, IV.7.25, “*Hinc colligimus tyrannidem esse in animas magis quam in corpora: quae adversus spirituale Christi regnum erigatur? Tametsi autem omnes quae ab initio extiterunt haereses ac sectae ad regnum Antichristi pertineant.*” OS.5: 128-129.

물론 칼빈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순전히 신자의 내면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영적 통치로만 이해한 것은 아니다. 칼빈이 이해하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통치권의 영역에는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훨씬 포괄적인 차원에서 포함된다. “사도들은 세상이 아들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으며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다고 가르친다.”¹⁴ 칼빈은 이와 같은 포괄적인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교회에 국한시키지 않고 교회와 국가 모두 그리스도의 통치의 일부분임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런 통치는 그리스도의 영적이고 내면적인 나라와는 다르다고 우리가 방금 지적한 것과 같이 우리는 이 둘이 서로 반대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¹⁵ 그러므로 두 종류의 통치는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 그러나 교회를 통해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통치는 그 성격이 영적이며 내면적이라는 의미에서 세속의 통치와 구별된다. 위의 설명들에서 발견할 수 있듯이, 칼빈이 그리스도의 나라와 관련하여 교회론 논의 가운데 두드러지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그리스도의 영적 통치와 그 결실이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영적 통치의 결과는 물질적이며 유대적 사고 방식에서 동일시하는 가시적인 조직이나 그 조직의 성취와는 구별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칼빈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그의 교회론에서 설명할 때 강조하

13 *Institutes*, IV.20.1, OS.4: 472. 칼빈은 성찬과 관련하여도 그리스도의 나라를 신자의 내면에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통치라고 말한다. “이 나라는 공간 가운데 위치가 한정되거나 경계로 제한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어디 서든지 뜻대로 권능을 행하시며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으신다. 권능과 힘으로 자신의 임계를 알리시며 자신의 백성 중에 항상 계시고 그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불어 넣으시며 그들 안에 계시고 마치 육체로 계시듯이 그들을 지탱하고 강화하며 살리며 해를 받지 않게 하신다.” *Institutes*, IV.17.18, OS.4: 364.

14 *Institutes*, I.13.7, OS.3: 117. Edmonson은 칼빈이 그리스도의 왕직(kingship)을 우주적인 차원에서 보고 있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창조와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머리 이십(headship)보다 앞서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과 하나님이 아닌 것은 연결시키는 증보자이다.” Stephen Edmonson, *Calvin's Christ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143-147.

15 *Institutes*, IV.20.2, OS.4: 473.

는 두 가지 요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칼빈은 유대적이며 교황주의적인 “그리스도의 나라” 개념에 반대하면서 그리스도의 통치의 영적인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칼빈은 그리스도의 나라를 가시적 교회에 제한적으로 국한시키지 않고 그리스도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특히 그 나라의 영적인 은혜를 강조하고 있다.¹⁶

3. 교회와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구원사적 이해

칼빈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가시적인 교회보다는 더 영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제시한다면 어떻게 이와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적이고 포괄적인 통치로서의 그의 나라에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을 가시적인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가? 또 어떤 근거로 영적인 그리스도의 나라를 가시적인 교회 안에서 더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일까?

윌콕스는 칼빈이 가시적인 교회와 그리스도의 나라를 직접적으로 동일시했다는 그의 결론의 증거로 『기독교강요』 IV.2.4와 아모스 9:13절의 주석에서 그리스도의 나라와 교회에 대한 칼빈의 언급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 두 본문은 윌콕스의 주장과는 달리 칼빈이 직접적으로 가시적 교회와 그리스도의 나라를 아무런 조건 없이 동일시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말씀에 대한 강조와 종말론적인 이해라는 두 전제를 가지고 두 실체를 연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첫째, 교회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홀인 그의 말씀의 사역을 부여 받았다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불려진다. 칼빈은 『기독교강요』 IV.2.4

16 두 번째 요점에 관련하여 부르트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왕국과 그대로 동일하지 않다. 왜냐하면 가시적 교회의 영역은 그 나라의 영역에 비해 너무나 좁은 것이기 때문이다.” G. Brillenburg Wurth, “Calvin and the Kingdom of God,” in *John Calvin: Contemporary Prophet*, ed. Jacob T. Hoogstra (Grand Rapids: Baker,

에서 이렇게 주장한다.

요약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나라이며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말씀만으로 지배하시므로, 그리스도의 홀, 즉 그의 자극히 거룩한 말씀과는 별개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존재하듯이 상상하는 것은 거짓말이란 것을 어느 누가 분명히 깨닫지 못하겠는가?¹⁷

위의 설명은 칼빈이 자신들의 교회만이 유일한 교회라고 주장하는 교황주의자들을 반박할 때 제시한 것이다. 그는 이어서 에베소서 2:20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를 해석하면서 이 본문은 성직자들의 가시적 위계질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직의 목적과 내용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교회의 기초는 사람의 판단이나 사제 계급이 아니라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교훈이라고 바울은 우리의 기억을 환기시킨다.(엡 2:20)”¹⁸ 이런 논쟁적 맥락에서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선포하는가의 여부가 그리스도의 나라, 즉 그의 통치권에 속하는 참 교회를 구별할 수 있는 표지라고 강조한다. “그러므로 비록 그들이 성전과 사제 계급과 그 밖의 외부 장식들을 내놓지만, 단순한 사람들의 눈이나 현혹시킬 헛된 외적 영화에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 교회가 있다고 인정할 수는 결코 없다.”¹⁹ 그러므로 가시적 교회는 그리스도의 통치의 “홀”(sceptum)인 그의 말씀을 가지고 신실하게 선포하는 “기관”(agent)으로서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불러

1959), 115.

¹⁷ Institutes, IV.2.4, “In summa, quum Ecclesia regnum sit Christi, regnet autem ille nonnisi per verbum suum: an ullis iam obscurum erit quin illa mendacii verba sint, quibus Christi regnum absque eius sceptro (id est sacrosanct ipsius verbo) esse fingitur?” OS.5: 36.

¹⁸ Institutes, IV.2.4, OS.5: 36.

¹⁹ Institutes, IV.2.4, OS.5: 35-36.

질 수 있다. 칼빈은 말씀을 자주 “홀”로 비유하면서 그리스도의 나라의 합법적인 통치의 도구로서의 말씀의 권위를 강조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왕의 홀과 같으므로, 우리는 여기서 모든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그 말씀에 가까이 복종하도록 만드시기를 하나님께 기원하라는 명령을 받는다. 이 일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영의 은밀한 감동을 통해서 그의 말씀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그 말씀이 마땅히 받을 높은 영예를 받게 되는 때이다.²⁰

칼빈은 하나님의 통치의 “홀”로서의 말씀의 권위를 구원역사 가운데 설명한다.²¹ 구약 족장 시대에도 족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의 나라의 들어갈 수 있었다. “아담, 아벨, 노아, 아브라함 이하의 족장들은 이와 같은 말씀에 의한 조명으로 하나님에게 밀착하여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영원불멸하는 나라에 틀림없이 들어갔다고 나는 단정한다.”²² 그러나 이제까지 희미하게 가려져 있던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 온전히 드러났다.

그들(율법과 선지자)은 언젠가는 분명히 계시될 그 지혜를 예상하게 만들었으며, 그 지혜가 멀리서 반짝이는 것을 가리켰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손가락으로 가리킬 수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열렸다. 그리스도에게서 “지

²⁰ Institutes, III.20.42; “Iam quia verbum Dei instar sceptri regii et precari hic iubemur, ut omnium mentes et corda voluntariae eius obedientiae subiiciat. Quod fit ubi arcano spiritus sui instinctu efficaciam verbi sui exerit, ut emineat in quo meretur gradu honoris.” OS.4: 352-353.

²¹ Edmonson은 하나님의 나라, 혹은 그리스도의 나라의 도래에 대한 칼빈의 구원역사적 이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비록 그의 통치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마지막 심판하실 때가 영원할 것이지만, 그 시작으로부터 아담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조치로 주어진 그의 언약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Edmonson, *Calvin's Christology*, 143.

²² Institutes, II.10.7, OS.3: 408.

해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계시되었으며(골 2:3), 이 지혜와 지식에 의해서 우리는 가장 깊은 하늘 성소에 거의 다다를 수 있다.²³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드러났고 하나님의 통치는 그리스도에게 맡겨졌으므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불려진다.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시작된 새로운 그리스도의 나라의 통치는 특히 그의 말씀인 복음의 선포를 통해 세상에 드러난다. “그리스도의 나라의 시작과 관련해서는 나는 이미 그의 나라의 시작이 그의 태어나시는 시점이 라기보다는 복음의 선포를 의미한다고 말했다.”²⁴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시기 전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 선포를 통해 그의 나라를 이 땅 위에서 확장해야 할 사명을 주셨다.

사도들에게는 아무 제한도 가하지 않고 전 세계를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고 하셨는데, 이는 각 국민 사이에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사도들이 파견된 목적은 반역하는 세상을 돌이켜 하나님께 올바르게 복종하게 만들며 복음을 전해서 세계 각지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다. 교회의 창설자로서 온 세계에 그 터를 닦아 두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²⁵

사도들의 사명에 대한 이 설명에서 칼빈은 그리스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면서 교회의 창설을 그리스도의 나라의 확장

²³ *Institutes*, II.11.5, OS.3: 428.

²⁴ *Comm. Dan.* 2:45, CO.40: 606. 칼빈은 그리스도의 나라의 도래를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의 어떤 특정한 시점과 구체적으로 연결시키지는 않는다. 칼빈은 그리스도의 “회개 선포”를 그의 나라의 시작이라고 말하기도 하고(*Institutes*, II.9.4, OS.3: 401, *Comm. Dan.* 2:44, CO.40: 606) 때로는 그리스도의 승천이라고 말하기도 한다(*Institutes*, II.16.14, OS.3: 502, *Comm. Dan.* 7:8, CO.41: 50). Wilcox, “The Progress of the Kingdom of Christ,” 318 참조.

²⁵ *Institutes*, IV.3.4, OS.5: 46.

연결하고 있다.

그러나 사도들에게 부여된 특별한 은사와 기적들은 그리스도의 나라의 초창기의 특별한 기간을 위한 것이었다. 기록된 말씀이 확정된 이후에는 더 이상 비상한 기적은 필요하지 않다.²⁶ 이후에는 그리스도의 나라의 확장 사명은 사도적인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의 말씀 사역으로 계속된다. 칼빈은 마태복음 16:19의 “열쇠의 권한”을 해석하면서 이 권한을 교회의 말씀 사역의 권위라고 말한다. “죄를 사하거나 그대로 놓아두는 것과 관련한 이 명령과 묶고 푸는 것과 관련해 베드로에게 주어진 약속은 말씀의 사역을 가리키는 것이라고만 해석해야 한다.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그의 사역을 위임하셨을 때, 그들에게 묶고 푸는 직임도 또한 갖추어주셨기 때문이다.”²⁷ 이제 가시적 교회는 말씀의 선포, 특별히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확장시켜 나갈 사도적이며 천사적인 사명을 부여 받았다. “옛날에 백성을 천사들에게 맡기시지 않고 땅에 교사들을 세워서 천사의 직책을 진실하게 수행하도록 하신 것과 같이, 지금도 사람을 사용하여 우리를 가르치시고자 하신다.”²⁸ 그러므로 가시적 교회는 지금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통치의 “홀”인 말씀의 선포 사명을 독특하게 부여 받은 그리스도의 나라의 기관이며 도구이다. 칼빈은 구원사적 가시적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의미는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은혜의 기관 혹은 수단으로서 세워졌다는 데 있음을 강조한다.

칼빈에게는 말씀의 선포와 가르침이 충실하게 수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²⁶ “그러나 사도 시대 안수함으로써 주시던 기적적인 권능과 나타난 역사는 이미 중단되었다. 그런 일들이 한 때만 있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것은 복음의 새로운 선포와 그리스도의 새로운 나라는 일찍이 들은 일이 없는 비상한 기적들에 의해서 조명을 받고 확대되어야만 했기 때문이다. 주께서 기적을 그치셨을 때, 교회를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과 하나님 말씀의 존귀성이 이미 충분히 나타나셨다고 선언하셨다.” *Institutes*, IV.19.6, OS.5: 441.

²⁷ *Comm. Matt.* 16:19, CO.45: 475.

²⁸ *Institutes*, IV.1.5, OS.5: 8.

단순히 조직 교회의 수가 증가하는 것은 자체로 별다른 의미가 없다. 칼빈은 가시적 교회가 수행해야 하는 말씀 선포 사역의 중요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곧 교회가 그리스도의 나라인지 아닌지 판별할 수 있는 표지라고 말한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순간에 그의 백성을 완전하게 만드실 수 있었지만 그들이 교회에서 교육을 받음으로써 장성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다? 이사는 이미 오랜 전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구별하는 표지를 말했다. “네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사 59:21).²⁹

그러므로 칼빈이 가시적 교회를 그리스도의 나라와 깊이 연관시키고 있는 것은 아무런 전제 없이 이 두 실체를 동일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 부여된 신적인 사명, 즉 말씀의 선포와 가르침의 사역을 전제하는 것이다. 말씀을 맡은 직무를 충실하게 감당하지 않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하지 않으며 참 교회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과 이후 교회의 사역자들에게 동일하게 부여하신 말씀의 사명을 이 세상에서 충실히 수행할 때 이 교회는 참된 교회이다. 그리고 참된 교회의 충실한 사명 감당을 통해 그의 통치가 전 세계 가운데 확장될 뿐 아니라 신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점점 더 드러나게 된다.³⁰

²⁹ *Institutes*, IV.1.5, OS.5: 8.

³⁰ “하나님께서는 땅에 속한 수단으로 우리를 마치 병거에 싣듯이 해서 그의 하늘 영광에 올리신다. 곧 무한하여 모든 것을 충만케 하며 하늘보다도 더 높은 하늘 영광에 올리시는 것이다.” *Institutes*, IV.1.5, OS.5: 8.

4. 그리스도의 나라의 종말론적 완성

4.1. 비가시적 교회의 종말론적 완성

칼빈은 그의 구원사적 교회 이해로부터 현재 교회의 사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나라의 통치와 그 확장이 종말론적으로 완성된다고 생각한다. 퀴스토르프는 칼빈이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교회를 하나님 나라와 연결시키고 있음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교회는 참으로 하나님 나라와 갖는 특별한 관계 가운데 서있다. 그러나 교회는 그의 나라와 곧바로 동일한 것은 아니며, 교회가 미발달 상태의 그리스도의 영적 나라(embryonic spiritual Kingdom of Christ)를 품고 있다는 한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여겨질 수 있다.”³¹ 토랜스는 퀴스토르프와 더불어 칼빈이 종말론적 관점에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를 이해했다고 주장한다. “교회와 왕국의 상호 관계는 종말론적 긴장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현재 이곳에 있는 교회는 지상의 실존하고 있는 왕국의 완벽한 형태를 옮겨 놓을 정도로 그 왕국과 상호관련성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두 시대를 중첩시키는 것은 삼가야 한다.”³²

퀴스토르프와 토랜스가 지적하듯이 칼빈은 윌콕스의 주장과 같이 아무런 전제 없이 곧바로 교회를 그리스도의 나라와 동일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라의 기관으로서 교회가 갖는 종말론적인 정체성에 주목하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나라의 긴밀한 관계를 설명한다. 윌콕스는 칼빈이 아모스 9:13절 주석에서 그리스도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곧바로 동일시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칼빈의 주석은 그의 설명의 전제인

³¹ Heinrich Quistorp, *Calvin's Doctrine of the Last Things*, trans. Harold Knight (London: Lutterworth, 1955), 165.

³² Torrance, *Kingdom and Church*, 95-96.

종말론적 관점을 더욱 분명하게 해준다.

동시에 성령은 이와 같은 비유적인 표현으로 그리스도의 나라를 모든 행복과 축복일 것이라고, 혹은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누릴 이와 동일한 행복과 축복이라고 선언한다.³³

칼빈은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통해 교회가 누리게 될 미래의 축복이 곧 그리스도의 영적인 나라라고 설명하고 있다.³⁴ 즉 칼빈이 주목하는 것은 가시적 교회와 그리스도의 나라의 동일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통치로 인해 실현된 축복을 교회,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 받은 자녀들인 비가시적 교회가 같이 동일하게 누릴 것이라는 약속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서 누리는 복은 영적인 복이다. “더 나아가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곡식과 포도의 풍성함은 그리스도의 나라의 본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설명해야만 한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적인 것과 같이, 그 나라가 영적인 복으로 가득하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충분한 설명이다.”³⁵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칼빈이 신자들이 누리는 그리스도의 나라의 영적 축복을 종말론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already) 구원의 새로운 삶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 “하

³³ *Comm. Amos 9:13*, “*Interea sub istis figuris spiritus pronuntiat, modis omnibus regnum Christi felix et beatum fore, vel ubi regnare Christus coeperit, beatam fore ecclesiam Dei, quod idem valet.*” CO.43: 172.

³⁴ Wilcox의 오류는 일차적으로 그가 참조한 영어 번역의 모호함에서 비롯되었다. “At the same time, the Spirit under these figurative expressions declares, that the Kingdom of Christ shall in every way be happy and blessedness, or that the Church of God, which means the same thing, shall be blessed, when Christ shall begin to reign.” John Calvin, *Commentaries on the Twelve Minor Prophets by John Calvin, Vol. II, Joel, Amos, Obadiah*, trans. John Owen (Edinburgh: Calvin Translation Society, 1846), 410.

³⁵ *Comm. Amos 9:15*, CO.43: 175.

나님 나라를 선포함으로써 그(세례 요한)은 그들이 믿음을 가지도록 호소하였다. 그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란 것은 죄의 용서와 생명과 그 밖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모든 것을 의미했다.”³⁶ 그리고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누리는 영적인 축복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뿐 아니라 공동체적인 차원에서도 실현된다.

그러므로 새로운 백성은 옛 백성과 구별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부터 일어나신 후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적인 것과 같이 믿는 영혼들은 그와 함께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그분께서는 교회가 결코 그분의 무한한 축복들을 상실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시지만, 교회가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고 하늘의 가르침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³⁷

그러나 위의 설명이 암시하고 있듯이 교회가 누리는 영적인 축복으로서의 그리스도의 나라는 “아직”(not yet) 완전히 실현되지 않았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는 광채와 기쁨과 행복과 영광이 가득하리라는 말을 들으며, 또 그것은 옳은 말이지만 그런 말을 하는 동안은 그것은 아직도 우리 지각에서 아주 멀고, 또 희미한 것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 날이 와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기까지는 그런 상태가 계속된다.³⁸

³⁶ *Institutes*, III.3.19; “*Regnum Dei annuntiando, ad fidem vocabat; siquidem per regnum Dei quod docebat in propinquo esse, remissionem peccatorum, salute, vitam, et quicquid omnino in Christo assequimur, significabat.*” OS.4: 76.

³⁷ *Comm. Isa. 59: 21*, CO.37: 395.

³⁸ *Institutes*, III.25.10; “*Nam utcumque vere audiamus, regnum Dei claritate, gaudio, felicitate, gloria fore refertur: illa tamen quae nominantur, a sensu nostro remotissima et quasi aenigmatibus involuta manent, donec venerit dies ille, quo nobis suam gloriam ipse facie ad faciem conspiciendam exhibebit.*” OS.4: 452-453.

그리스도의 나라의 영적인 축복을 부여 받은 성도들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이 세상에서 "이미"와 "아직 아니"의 종말론적 긴장 가운데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 "더욱이 성령은 이 싸움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자극하며 격려하기 위해 우리와 싸우는 원수의 수가 하나 둘 하는 소수가 아니라 대군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사탄이나 마귀에 대하여 자주 단수로 언급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의의 나라를 반대하는 악의 통치를 나타내는 것이다."³⁹ 이런 영적 싸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교회가 영적으로 전진하는 것이 곧 칼빈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나라의 확장이다. 칼빈은 스가랴 14:21 주석에서 그리스도의 나라의 종말론적인 전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리스도의 나라의 성취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말할 때마다 우리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하루나 잠시 동안의 시간에 제한시켜서는 안 된다. 대신에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나라의 과정 전체를 포함시켜야만 한다. 주님께서는 지금 지속적으로 전진하게 하신 것을 마지막 그것이 완성될 때까지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다.⁴⁰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나라와 관련되어 있는 교회는 우선적으로 종말론적인 영적 성장과 영적 싸움에서의 전진을 계속해 나가는 성도들의 공동체, 즉 비가시적 교회이다. 비가시적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의 몸으로서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아래에서 계속적으로 전진하며 성숙해질 것이다. 바로 이것이 칼빈이 말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나라의 확장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나라의 종말론적 완성에 참여하는 교회는 제도적이며 가

시적인 교회라기보다는 영적이며 비가시적 교회, 곧 성도들의 영적 성장의 공동체적인 차원이라고 할 수 있다. 칼빈이 이해하는 그리스도의 나라와 교회의 영적인 진보와 관련하여 토랜스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러나 칼빈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 나라의 확장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 도리어 교회의 성장과 확장으로 드러나는 그에게까지 자라가야 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는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리스도의 통치, 혹은 그의 나라의 차원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⁴¹

4.2. 가시적 교회의 종말론적 사명 완수

그러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칼빈이 가시적이며 제도적인 교회가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몸인 비가시적 교회의 영적 진보와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도리어 칼빈은 가시적 교회는 비가시적 교회와 더불어 그리스도의 나라의 진보에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가시적 교회는 그리스도의 나라의 영적 진보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가? 비가시적 교회의 완성이 그 마지막에 있어 그리스도의 나라의 영적인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게 되는 것이라면 가시적 교회의 완성은 그 마지막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부여하신 말씀의 사역을 완수하는 것이다. 가시적 교회의 종말론적 사명 완수에 관해서 고린도전서 15:24절 이하 "그리스도께서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는 본문을 해석하는 곳에서 자신의 이해를 잘 보여준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아직 그의 모든 적들을 굴복시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올바르게 분명한 상태가 될 마지막 때가 아직 오지 않았음을 보면서, 그리스도께서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가 아직 오지 않았음을 증거한다."⁴² 칼빈은 고린도전서 15장의 종말적 예언들을 교회론적 차

³⁹ *Institutes*, I.14.14, OS.3: 165.

⁴⁰ *Comm. Zech.* 14:21; "Ergo quoties prophetae perfectionem commendant sub Christi regno, non debemus hoc restringere ad diem unum, vel ad exiguum tempus: sed debemus complecti totum cursum ab initio usque ad finem." *CO.*44: 390-91.

⁴¹ Torrance, *Kingdom and Church*, 95.

⁴² *Comm. 1 Cor.* 15:25, *CO.*49: 547.

원에서 해석한다. 즉 바울이 여기에서 하나님과의 신자들 사이의 화해의 직분으로 취하셨던 그리스도의 증보직의 완수됨을 말하고 있다고 이해한다. “그 때,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그분께서 받으신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의 방식으로 나라를 통치하지 않으시며 그의 인성이 그의 영광스러운 신성에 참여하셨던 방식으로 다스리실 것이다. 지금 우리의 연합함이 우리로 하여금 다가서지 못하게 하고 있는 그 길이 그 때에는 우리에게 열릴 것이기 때문이다.”⁴³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보직의 완성은 곧 그의 증보 사역의 도구로 사용된 교회의 사명 완수를 의미한다.

더 나아가 그 때에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이나 사람들의 손을 빌지 않으시고 그의 능력과 통치를 친히 홀로 행사하실 것이기에 하늘에 속한 천사의 주권과 교회에 속한 사역들과 특권들이 마지막을 맞게 될 것이다. 감독들과 교사들, 그리고 선지자들은 이런 명예들을 더 이상 갖지 않게 될 것이고 지금 그들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사임하게 될 것이다.⁴⁴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면, 마지막 그리스도의 날이 이르면 사람들 통해 수행되어 온 말씀 사역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다. 마지막 날 모든 신자들이 그들의 몸과 영혼이 모두 부활하여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

⁴³ *Comm. 1 Cor. 15:27, CO.49: 549.*

⁴⁴ *Comm. 1 Cor. 15:24, CO.49: 547.*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증보직 사역의 완성과 더불어 교회의 권위와 은혜의 외적 방편으로서의 교회 사역이 완수되며 종결될 것이라는 칼빈의 이해는 루터의 종말론적인 교회 이해와 유사하다. 루터는 고린도전서 15장 주석에서 현재 그리스도의 나라를 “믿음의 나라”, 혹은 “주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말하면서 미래에 나타날 완성될 나라인 “선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난 나라” 혹은 “하나님의 나라”와 대조한다. 그리고 이 미래적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지금 현 세상에서 세례와 설교와 성찬, 그리고 열쇠의 직분과 사죄를 통해 다스리시고 계신 영적인 통치와, 부모 자식, 남종과 여종, 영주와 제후, 농부와 시민 등과 같은 세속 권세의 계급과 직무들을 모두 종결하실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Martin Luther, Comm. 1 Cor. 15:24, WA. 36: 571-72.*

이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비록 완전하게 보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날까지 미루어져 있지만, 죽음 이후 우리의 영혼이 육체로부터 자유로워져 더 이상 외적인 목회의 도움이나 다른 열등한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될 때 곧 하나님을 더 가까이에서 보게 되는 일이 시작될 것이다.”⁴⁵ 교회적인 차원에서 보면,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그의 통치와 능력을 사람이나 천사들의 손에 의지하지 않고 친히 홀로 시행하실” 것이므로 가시적 교회의 사역들은 폐지될 것이다.

그러므로 가시적 교회의 종말론적인 완성과 사명 완수는 종말에 이르러 비가시적 교회가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축복과 그 마지막 모습에서 구별된다.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께서 그의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게 될 때, 성도들이 누릴 그 나라의 영적인 축복은 분명하고 완전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한편,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말씀과 말씀을 위해 같이 제정된 성례를 담당한 가시적 교회는 그 사명이 완성되어 종결된다. 그 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게 하며, 그렇게 곧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되고 전진하도록 하는 것이 가시적 교회가 구속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로부터 부여 받은 종말론적인 사명이다.

4.3. 두 종류의 교회와 종말론적 교회 이해의 목적

칼빈은 이처럼 구속사의 관점에서 가시적 교회의 사명을 이처럼 종말론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한다 즉, 교회는 현재의 “아직 아나”의 불완전성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라고 불려지며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는 “이미”의 완전성 사이의 종말론적인 긴장 사이에 놓여있다. 그의 마태복음 13장의 예수님의 가라지 비유에 대한 주석은 그의 종말론적인 교회 이해를 명확히 보여준다. “그리스도께서는 천사들을 통하여 그의 교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마

⁴⁵ *Comm. 1 Cor. 13:12, CO.49: 225-26.*

지막으로 그의 손을 내밀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경건한 교사들을 통하여 그와 같은 일을 시작하였다.”⁴⁶ 칼빈은 그리스도의 나라와 교회의 밀접한 관계를 염두에 두고 비가시적 교회와 가시적 교회를 결코 다른 두 실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택자들의 총합으로서의 비가시적 교회와, 그 안에 위선자들을 포함하고 있는 가시적 교회는 그 구성원에 있어서 구별된다. 그러므로 칼빈의 교회론에서 이 두 교회는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non separatio sed distinctio) 관계를 맺는다고 할 수 있다.

칼빈이 두 종류의 교회를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 관계로 설명하는 신학적 기초에는 가시적 교회의 사명에 대한 종말론적 이해가 놓여있다. 즉, 현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는 각각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서 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교회”라고 불려진다. 그리고 현재의 한계들에도 불구하고 두 종류의 교회 모두 그리스도의 나라의 지속적인 영적 확장과 전진의 과정에 참여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 두 교회는 분리되지 않는다. 그러나 마지막 종말에 이르면 가시적 교회는 그 사명을 완수하고 종결될 것이며, 비가시적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그 나라의 영적이 축복을 완전하고 가시적으로 누리게 될 것이다. 즉 이 세상에서 지금 비가시적으로 존재하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가시적인 교회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런 면에서 이 두 교회는 서로 구별된다.

궁극적으로 칼빈이 교회를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에는 실천적이며 목회적인 목적이 놓여 있다. 칼빈은 가시적 교회의 가치와 역할을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설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편을 위탁하신 교회 안에서 교회와 일치할 유지해야 함을 역설하고자 했다.

⁴⁶ *Comm. Matt. 13:39*; “Caeterum quanquam tunc extremam purgandae ecclesiae apponet per angelos, idem tamen nunc facere incipit per pios doctores.” CO.45: 370.

교회의 모든 신자가 흠이 있으며 불결한 점이 있는데 교회가 모든 점에서 완전히 거룩하며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이야기인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성결하게 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은 거룩함의 시초가 보일 뿐이며 그 최종적인 완성은 지성소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거룩하심으로 교회를 완전히 충만하게 하실 때에 나타날 것이다. 교회의 티와 주름 잡힌 것이 씻겨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매일 계속되는 과정이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남은 것은 완전히 제거하실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⁴⁷

칼빈은 이와 더불어 교회의 종말론적 특징을 강조하여 이 지상 교회에서 고난과 핍박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확신을 제공하고자 했다. 비록 각 성도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한 방편을 부여 받은 교회가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속한 가시적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나라가 성장하고 있음을 확신하고 끝까지 인내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자신과 함께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이끄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면에서 우리들 가운데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인내함으로 기다리도록 하자.”⁴⁸ 또 지금은 비록 교회와 그 지체인 성도들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화의 은혜로 택함 받은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어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비가시적 교회가 온전하게 성숙해 가듯이 그들의 가시적 교회도 온전하게 그 맡은 사명이 완수될 것을 확신하며 소망해야 한다.

⁴⁷ *Institutes*, IV.8.12, “Ecclesiam vero sanctam et immaculatam iam penitus ac omni ex parte cesere, cuius membra omnia maculosa et nonnihil impura sint, quam inane ac fabulosum est? Verum est igitur, sanctificatam esse Ecclesiam a Christo: at eius sanctificationis initium hic duntaxat visitur: finis vero et solidum complementum extabit quum sanctus sanctorum Christus sua eam sanctitate vere et in solidum implebit. Verum est etiam deletas esse eius maculas et rugas: sed ita ut quotidie adhuc deleantur, donec suo adventu Christus quicquid residuum est, penitus auferat.” OS.5: 144-45.

⁴⁸ *Comm. 1 Cor. 15:27*, CO.49: 549.

5. 맺음말: 소망의 교회론

칼빈이 생각하는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의 종말론적인 연속성과 비연속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칼빈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나라와 연결시켜 설명하고 있는 의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윌콕스는 칼빈의 종말론적인 교회 이해를 간과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칼빈은 제네바에서 프랑스로 파견된 목사들과 다른 지역에서 개혁을 위해 헌신하는 목회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복음 선포를 통해 ‘참된’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담당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헌신하고 있다고 여겼다.”⁴⁹ 칼빈은 물론 개혁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 고난을 감수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신자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칼빈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나라의 확장과 전진은 “개혁 교회”의 외적 증가나 정치적 영향력 확대보다는 훨씬 더 포괄적이며 영적인 개념이다. 즉, 그리스도의 나라의 확장과 전진은 우선 신자들의 영적인 성장이 공동체적으로 드러나는 것, 즉 비가시적 교회의 영적 성숙이다. 윌콕스가 그의 결론의 근거 구절로 제시한 칼빈의 시편 45:16 주석은 도리어 그리스도 나라에 대한 그의 영적인 이해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세상의 판단에서 볼 때 십자가의 불명예는 교회의 영광을 흐리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놀라운 방식으로 교회가 자라왔는지, 또 영적인 은사들로 인해 얼마나 큰 영예를 가지게 되었는지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본문이 이처럼 고상한 언어로 교회의 영광을 기리는 것에 충분한 이유가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⁵⁰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나라의 확장과

진보는 종말론적인 그의 통치의 확장이다. 그래서 칼빈은 마태복음 11:11 주석에서 그의 나라를 “교회의 새로운 상태”(new condition of the Church)라고 정의한다. “하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의 새로운 상태를 지시한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인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라고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다.”⁵¹ 모든 것의 회복에서 회복될 교회는 택자들의 총합인 비가시적 교회이다. 그리고 비가시적 교회의 온전한 회복은 가시적 교회가 수행해 온 말씀의 선포와 가르침 사역의 원수와 종결을 포함한다. 마태복음 5장 주석에서 칼빈은 “하늘의 나라”를 “교회의 개혁”(renovation of the Church)이라고 말하면서 비가시적 교회의 종말론적 완성을 종말론적으로 완수될 가시적 교회의 사역과 연결시킨다.

“하늘의 나라”는 지금 복음 선포를 통해 나타나기 시작한 교회의 개혁, 혹은 교회의 온전한 상태를 의미한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의 손을 통해 이 세상을 회복시키심으로써 그의 나라를 완전하게 세우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교회가 새로워질 때, 단순한 율법의 교사는 그 나라에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다만 율법의 신실한 해석자들과 그 모든 가르침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만 그 나라에 허락될 것이라고 선언하셨다.⁵²

그리스도의 처음 오심으로 시작된 그의 나라는 이제 이 땅에서 그의 통치에 순종하며 그 통치를 영적으로 확장시키기 위해 신실하게 위임 받은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을 통해 전진한다. 어떤 외적이고 수적인 증가나 정치적인 영향력의 증대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그의 나라와 통치를 완성하기 위해 이 땅에 세워진 가시적 교회는 그리스도의 나라의

⁴⁹ Wilcox, “Progress of Kingdom,” 321.

⁵⁰ *Comm. Ps.* 45:16, CO.31: 453.

⁵¹ *Comm. Matt.* 11:11 “*Regnum coelorum Dei pro novo ecclesiae statu capitur, ut aliis superioribus locis, quod Christi adventu promissa est rerum omnium instauration.*” CO.45: 303.

⁵² *Comm. Matt.* 5:19, CO.45: 172.

기관으로서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나라가 아버지께 온전히 바쳐질 때까지 쓰임을 받는다. 이것이 칼빈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의 새로운 상태, 그리고 교회의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신학적 기초이다. 칼빈은 교회를 제도적인 교회의 수적 확장과 세속적 영향력 증대를 독려하기 위해 교회와 그리스도의 나라의 전진을 연결시키지 않는다. 도리어 그리스도의 나라의 종말론적인 완성에 쓰임 받기 위해 세워진 제도적 교회의 종말론적인 성격을 조명하여 핍박과 고난 가운데 성실하게 말씀 선포의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의 나라를 영적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참된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려 했다.

[Abstract]

Calvin's Explanation of the Church as an Eschatological Agent of Christ's Kingdom

Kim Jo-Seph(Calvin University)

In many places of his writings, Calvin explains the church in connection with the Kingdom of Christ. To understand Calvin's explanation, it is necessary for us to acknowledge the theological foundations upon which he connects the church with Christ's Kingdom. First, Calvin does not relate the church with the Kingdom without emphasizing that the church has the mission to preach the Word. For Calvin, the church is a distinct agent of Christ's Kingdom in salvation history because Christ gave the church the mission to expand his Kingdom by preaching and teaching the Word which he calls the 'scepter' of Christ's rule. Second, Calvin always presupposes the eschatological accomplishment of the mission of

the church in his explanation. Christ uses the church to rule his people until the last day when he comes again and completes salvation history. On that day, the visible church, the sum of elect, will enjoy the perfect blessings and happiness in the Kingdom of God. The visible church will also be perfect in the sense that its mission of the Word will be completed and terminated.

In Calvin's explanation of the church as an eschatological agent of Christ's Kingdom, we see his idea that the invisible and the visible churches have "inseparable but distinct" relationship to each other. These two churches are inseparable because both progress in an eschatological way in salvation history. However, they are distinct to each other because the end of the invisible church is the completion of its progress but the appearance of the perfect believers, the end of the visible church is the termination of its mission.

There are his pastoral purposes for which Calvin speaks of the church as the agent of the Kingdom of Christ from this eschatological perspective. First, Calvin tries to assert the unity of believers in their church in spite of its imperfection. The visible church has its authenticity not in its perfection but in the fact that Christ uses the church to expand his Kingdom in this world. Second, Calvin endeavors to encourage the church in affliction with his explanation. Even in the hard time, the church and its members ought to endure their sufferings and hope that Christ will complete his Kingdom on the last day.

• **Key Words:** Kingdom of Christ, Eschatological Mission, the Scepter, the Invisible Church, the Visible Church, Ecclesiology of Hope.

[참고문헌]

- Avis, Paul D.L. *The Church in the Theology of the Reformers*. London: Marshall Morgan and Scott, 1981.
- Battles, Ford Lewis. *Interpreting John Calvin*. Grand Rapids: Baker, 1996.
- Bucer, Martin. *De Regno Christi*. In *Melanchibon and Bucer: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Vol. XIX. Translated and Edited by Wilhelm Pauck.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9.
- Butin, Philip W. *Revelation, Redemption and Respons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 Calvin, John. *Calvin's Commentaries*. 46 Vols. Edinburgh: Calvin Translation Society, 1844-1855; reprinted as 22 Vols. Grand Rapids: Baker, 1979.
- _____.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1559):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vols. XX and XXI. Trans. Ford Lewis Battles.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0.
- _____. *Ioannis Calvini opera quae supersunt omnia*. Eds. G. Baum, Edward Cunitz, and Edward Reuss. 59 vols. Brunsvigae: C.A. Schwetschke und Son, 1863-1900.
- _____. *Joannis Calvini Opera Selecta*. Eds. Peter Barth, Wilhelm Niesel, and Dora Schenuner. 5 Vols. München: Christian Kaiser, 1926-1962.
- _____. *Commentaries on the Twelve Minor Prophets by John Calvin, vol. II, Joel, Amos, Obadiab*. Trans. John Owen. Edinburgh: Calvin Translation Society, 1846.
- De Greef, W. *The Writings of John Calvin: An Introductory Guide*. Trans. Lyle D. Bierma. Grand Rapids: Baker, 1993.
- Edmonson, Stephen. *Calvin's Christ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 Foxgrover, David. Ed. *Calvin and the Church: Papers Presented at the 13th Colloquium of the Calvin Studies Society May 24-26, 2001*. Grand Rapids: CRC, 2002.
- George, Timothy. Ed. *John Calvin & the Church: A Prism of Reform*.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0.
- Hoogstra, Jacob T. Ed. *John Calvin Contemporary Prophet*. Grand Rapids: Baker, 1959.
- Kroon, Marijn de. *The Honour of God and Human Salvation: Calvin's Theology according to his Institutes*. Trans. John Vriend and Lyle D. Bierma. Edinburgh: T. & T. Clark, 2001.
- Loeschen, John R. *The Divine Community: Trinity, Church, and Ethics in Reformation Theologies*. Kirksville: Sixteenth Century Journal Publishers, 1981.
- Luther, Martin. *Luthers Werke. Kritische Gesamtausgabe*. [Schriften.] 65 vols. Weimar: H. Bohlau, 1883-1993.
- McKim, Donald K. Ed. *The Cambridge Companion to John Calvi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 Milner, Benjamin. *Calvin's Doctrine of the Church*. Leiden: E. J. Brill, 1970.
- Niesel, Wilhelm. "The Reformed View: the Church as the Mother of Believers and the Body of Christ." In *Reformed Symbolics: A Comparison of Catholicism, Orthodoxy, and Protestantism*. Ed. Wilhelm Niesel. Edinburgh: Oliver and Boyd, 1962, 247-56.
- Niesel, Wilhelm. *The Theology of Calvin*. Trans. Harold Knight.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56.
- Neuser, Wilhelm H. and Armstrong, Brian G. Eds. *Calvinus Sincerioris Religionis Vindex: Calvin as the Protector of the Purer Religion*. Kirksville: Sixteenth Century Journal Publishers, 1997.
- Palmer, Thomas. "Kingdom and Church in Calvin: The Question of the Identification of Kingdom and Church in the Theology of John Calvin." Ph.D. Thesis: University of Aberdeen, 1991.
- Peter Wilcox, "The Progress of the Kingdom of Christ' in Calvin's Exposition of the Prophets." In *Calvinus Sincerioris Religionis Vindex*. Ed. Wilhelm H. Neuser. Kirksville: Sixteenth Century Journal Press, 1997.

Quistorp, Heinrich. *Calvin's Doctrine of the Last Things*. Trans. Harold Knight. London: Lutterworth, 1955.

Steinmetz, David. C. *Calvin in Contex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Torrance, Thomas. F. *Kingdom and Church*. London: Oliver and Boyd, 1956.

Wendel, Francois. *Calvin: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His Religious Thought*. Trans. Philip Mairet. London: Collins, 1963.

Wurth, G. Brillenburg. "Calvin and the Kingdom of God." In *John Calvin: Contemporary Prophet*. Ed. Jacob T. Hoogstra. Grand Rapids: Baker, 1959.

『한국개혁신학』 제 27호 (2010) : 161-86

교회의 권위로서 합의(*consensus ecclesiae*)에 대한 칼빈의 이해

양 신 혜 (Dr. theol., Berlin Univ.)



본 글은 한국 장로교 분열의 시발점이 되었던 조선신학교 51명 학생이 제출한 진정서에서 그들이 교회의 권위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근거로 성경의 권위를 논증한 것과 칼빈이 카스텔리오와 논쟁에서 정경으로서 아가서의 권위를 교회의 합의인 정경목록에 근거하여 옹호한 것을 출발점으로 삼았다. 이 방법은 교회의 합의에 토대를 둔 결정이야말로 인간적인 결정이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오히려 성령의 확증과 성경의 신적 본질인 자증성의 결합을 통한 확증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개혁교회의 전통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바로 이 모순점을 본 글의 주제로 삼아 칼빈이 교회의 권위로서 교회의 합의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우선 칼빈과 로마 카톨릭교회와의 논쟁에서 칼빈이 교회의 합의가 지닌 권위를 어떻게 정당화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칼빈과 로마 카톨릭교회와의 경계의 지점을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로마 카톨릭교회는 교회의 합의와 성령을 연결시켜 교회의 권